



장성 산불 헬기 진화

지난 5일 오후 2시에 장성군 장성을 단광리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ha를 태우고 2시간20분 만에 꺼졌다. 현장에는 산림청 헬기 4대와 군청 공무원, 소방대원 등 700여명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3D업종 '효자'에서 '해고 0순위'로

불황에 우는 외국인 노동자들

광주·전남 올 1,494명 퇴직...작년의 2.2배

귀국 않고 불법체류...인권 침해·범죄 우려

불황의 여파로 기업들이 대거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은 뒤에도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어 인권 침해 및 범죄 우려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선 실직 후 2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되는 것도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제도 보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월 노동부 산하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퇴직한 외국인노동자는 1천494명에 이른다. 이는 2007년 같은 기간(686명)의 2.2배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말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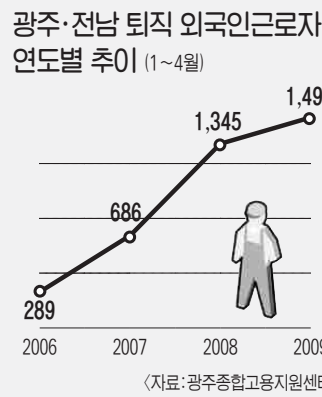
또 이같은 퇴직자 수는 현재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근무 중인 총 외국인노동자(4천363명)의 3분의 1

에 달할 만큼 외국인들의 고용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동안 국내 3D업종에서 '효자' 노릇을 해온 외국인들이 막상 불황이 닥치자 '해고 0순위'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고용 불안은 사례별 분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석 달간 계약 만료와 구조조정 등으로 706명이 퇴직했다.

이 가운데 177명(25.1%)은 모두 사측의 사정에 의해 일자리를 잃었다. 사례별로는 사업자에 의한 해고가 156명에 달했고, 회사의 휴폐업(15명), 회사의 구조조정(6명) 등이었다. 광주·전남에서 퇴직한 외국인 4명 중 1명은 타외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특히 이들 실직 노동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도 한국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법 체류자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뒤 2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체류자로 분류돼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광주·전남 퇴직 외국인근로자 연도별 추이 (1~4월) (자료: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중국인, '취업 시비' 조선족 흥기 상해

광주서부경찰은 6일 취업문제를 놓고 시비하던 끝에 조선족 출신 불법체류자를 흥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중국인 정모(37)씨를 상해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에 광주시 서구 관촌동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길에서 조선족출신 불법체류자 정모(46·중국)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목과 허벅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10일 전 정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데 최근 2개월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며 "강제 출국은 무섭지만, 한국 입국을 위해 600만원이나 빌린 현형이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광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불황으로 외국인들의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불법 체류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한국인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외국인들이 2개월 만에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거북선축제' 낙마 60대 숨져

여수시민협 안전대책 수립·진상규명 촉구

여수시 거북선 축제에서 거리 기마 행진을 하다 말에서 떨어진 60대 남성이 이를 만에 숨졌다.

6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낙마사고로 머리를 다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채모(62)씨가 5일 낮 사망했다.

채씨는 각종 행사에서 말을 타고 행진하는 이벤트 회사 소속으로 행진 도중 말이 폭죽소리에 놀라 넘어지면 서 부상당했다.

앞서 3일 오후에는 거북선 축제의 '봉수대 재현' 행사를 준비하던 공무원 2명이 연막탄 폭발로 화상을 입었고, 2일에는 여수 엑스포컵 국제 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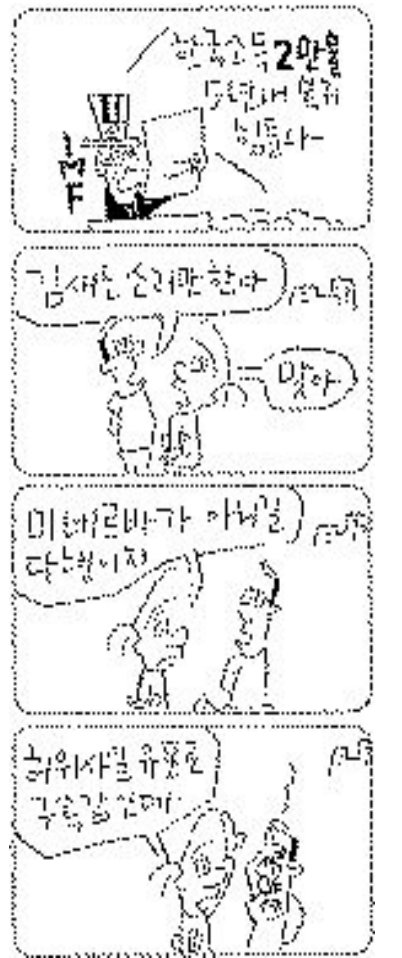
저 요트대회에 참가한 홍모(57)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여수시가 주관한 축제가 사고로 얼룩졌다.

여수시민협회의는 6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여수시는 축제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어 실행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회의는 "이 같은 사고는 행사를 주최한 여수시의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것으로 시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수사당국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니원침 (7796) 김장두



44쌍 신혼여행비 1억5천만원 들고 잠적

30대 여행사 대표 검거

수십 쌍의 예비신혼부부로부터 해외 신혼여행 경비를 건네받은 뒤 잠적(본보 2일자 3면)해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30대 여행사 대표가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6일 예비 신혼부부 44쌍이 맡긴 신혼여행비를 갖고 달아난 여행사 대표 김모(35·광주시 북구 각화동)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2일 결혼을 앞 두고 필리핀 보라카이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계약한 노모(33)씨로부터 800여만원을 건네 받은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44쌍의

예비부부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왔던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5년 전부터 광주시 동구에 H여행사를 운영해온 김씨는 경영난에 처하자 예비 신혼부부에게 여행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10~20%를 할인해 주겠다고 계약을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김씨가 감춰둔 여행비를 찾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김씨와 함께 여행사를 운영한 부인(35)에 대해서도 범행기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고생 무면허 사고 4명 사상

6일 새벽 1시40분께 여수~순천간 도로를 달리던 스포티지 승용차(운전자 윤모양·18·고3)가 순천시 해룡면 H카센터에 주차된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지모(18)양이 숨지고, 윤양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윤양이 몰던 차량이 커브길을 돌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절도범 내연녀 면회 왔다 '쇠고랑'

○상습 절도범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50대 남성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대담하게' 면회를 신청했다가 쇠고랑.

○6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상습 절도 용의자 김모(55)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에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내연녀 A씨를 면회했다가 교도소 측의 연락을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

○김씨는 올해 1~4월 전국에서 사찰과 병원, 마트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으며, 김씨를 붙잡은 청주 흥덕경찰은 6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위장 국제결혼 알선

금품 챙긴 4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중국의 한족 여성 등과 위장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나모(40)씨 등 일당 4명을 공판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나씨 등은 지난해 8월 11일께 광주 광산구청에서 김모(42)씨와 한족 여성 왕모씨를 위장결혼시킨 뒤 왕씨에게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고물 수수료 빼돌린

남구 공무원 2명 구속

광주남부경찰은 6일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천만원을 빼돌린 광주시 남구 소속 공무원 정모(42·행정 7급)씨와 한모(38·기능 9급)씨를 각각 업무상 횡령·직무유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과 광고물 관리 담당 공무원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고물협회가 구청으로 입금하는 수수료 3천여만원을 세외 수입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22차례에 걸쳐 가로챘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sales, leasing, and management. Contact: 062)236-3400.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 Premium buffet restaurant. 6월 5일 OPEN. Menu and contact information provided.